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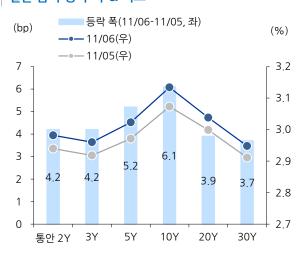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
		11/6일	1D	1W	YTD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60%	4.2	2.3	-19.4	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134%	6.1	2.9	-4.9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7.4	15.5	16.8	2.9	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75	-14.0	-9.0	33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5.78	-64.0	-39.0	28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65%	8.4	8.8	1.5	
	미국채 10년물	4.433%	16.2	13.2	55.4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6.8	9.1	12.4	-37.1	
	독일국채 10년물	2.404%	-2.2	1.6	40.0	
	호주국채 10년물	4.627%	6.1	16.1	67.2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미 대선이 전개될수록 트럼프 당선 및 레드스윕 가능성 거세지며 글로벌 채권 약세. 국고채, 이러한 흐름에 편 승하며 장 중 금리 상승폭 심화
- 원달러 환율 1,400원 수렴하여 한은 인하 기대 약화된 점도 부담. 외국인 국채선물 크게 매도하며 약세 지지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미 대선 트럼프 당선 속 장기 금리 중심 급등.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 반등이 연준 인하 속도 늦출 우려감 반영. 재정적자 및 미국채 발행 증가 불안 확대
- 공화당, 상원 장악한 가운데 아직 레드스윕 확정은 아니나 유력한 상황.
- 금일 미 3분기 단위노동비용, 중국 10월 수출입 발표. 국내 장 마감 후 BOE 통화정책회의, FOMC 등 예정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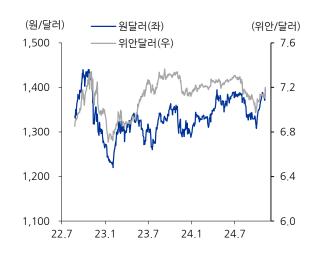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\$						
		11/6일	1D	1W	YTD	
	원/달러	1,396.20	1.3%	1.0%	8.4%	
	달러지수	105.11	1.6%	1.0%	3.7%	
	달러/유로	1.074	-1.7%	-1.1%	-2.8%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20	1.4%	1.1%	1.1%	
	엔/달러	154.56	2.0%	0.8%	9.7%	
	달러/파운드	1,289	-1.1%	-0.6%	1.3%	
	헤알/달러	5.68	-1.2%	-1.5%	17.0%	
상품	WII 근월물(\$)	71.69	-0.4%	4.5%	0.1%	
	금 현물(\$)	2,660.78	-3.0%	-4.5%	29.0%	
	구리 3개월물(\$)	9,321.00	-4.3%	-2.3%	8.9%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7.60원 급등한 1,396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99.30원 마감.
- 간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하락권에서 출발한 달러-원은 개강 직후부터 반등. 이른 오전에는 상승폭이 가팔라지 지 않았으나,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1,400원 문턱까지 급등.
- 장중 달러 인덱스는 105선을 돌파했고 달러-엔도 153 엔을 넘어서는 등 전방위 달러 강세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당선을 소화하며 상승.
-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. 법인세 인하, 규제 완화 기대 속에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주가는 급등.
- 반면 장기금리는 폭등했고, 달러도 전방위 강세를 지속. 달러-원은 야간거래에서 1,400원 돌파.
-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한 가운데 하원 선거 결과는 아직 미정이나 레드 스윕이 유력. 달러-원은 레벨 부담이 높 은 상황에 왔지만 상방 압력은 더 이어질 가능성 있음.